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탄한 날들이 가득했던 까보베르데의 삶을 一事一難으로 표현했던 교만을 단숨에 무너뜨리신 하늘 아버지께서 2016년 한 해 동안 多事多難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2017년의 첫 날을 Saskatoon,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맞게 하시면서 2017년이 무척 바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그대로 몸도 마음도 모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의 주인은 하늘 아버지였고 우리 부부는 그저 그분의 바쁨에 동승했던 승객으로 2016년의 훈련에 걸 맞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후임 선교사와 중국교회에 대한 조 선교사의 포기 선언은 자신의 삶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만들어 낸 리보네구아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낸 멋진 작품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건축하기 전에, 건축 중에 그리고 건축을 마친 후까지 조 선교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던 작은 앙금까지 모두 씻어 주기 위한 길고 짧은 여행까지 준비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계획은 한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쁨을 가지시고 그 기쁨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상까지 허락하시는 멋진 2017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Saskatoon은 자녀들과의 관계회복, 한국과 Bangkok 본부와의 관계회복, Atlanta는 가족들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São Paulo는 4년 6개월간의 까보베르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적 관계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전운이 감도는 어려운 시기를 주신 것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삶을 도려내는 아픔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하는 권리를 스스로 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아픔은 잠깐 이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2017년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날이 들어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날의 그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에서

조 남홍, 연섭 선교사 드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 을 2:18, 21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갈망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자의 축복의 보상은 하나
 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섬이며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까보베르에 한국인의 선점
 자(先占者)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안에서의 섬이며 안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의 만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뒤에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부족한 종들을 조금 더 주님과 가까운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
 다.

과거에 덕택에 부족함을 논하는 2차원에 머물러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자신을 드러내는 미숙
 함의 차원이 있었다는 것



을 깨닫는 것은 미미
 한 인생들도 예수님
 의 차원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까지 주
 시는 것은 아닐까
 요.....?



온전한 섬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일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2017년은 빈민가 아
 이들을 먹이시며 양육하시고 이 땅에 진리가 선포 되도록 준비 시키시는 차세대 일꾼들을 볼 수 있는 소망도 주셨고, 암
 벽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을 일구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며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건축 부지의 땅을 파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이 쌓아지면서 일 하는 청년들의 믿음도 함께 올라가
 기를 기도하게 하셨으며, 돌과 물을 이고 나르는 여인들의 섬김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하신 교제를 주시면서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작은 모습까지도 보여 주시며 이 모든 일
 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음을 마지막까지 보여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주님을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자신의 믿
 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자신의 소유를 까보베르에
 땅에 흘려 보내 주시게 하
 신 하늘 아버지께서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스스로 자



신의 소유를 포기한 많은 가난을 선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렀음을 알려주시며, 헌당예배 하루 전
 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임을 보는 감격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2017년은 은혜의 해였고, 고난의 날들이었습니다.

2017년 안에 있던 365일이라는 매일이라는 하루가 고난이었다면, 그 고난은 충분한 하나님 안에서의 섬과 안식이라는 은
 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쁜 소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라
 는 것을 확인하며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에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까보베르에 선교 공동체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
 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연합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최선이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복된 연말과 새해 되세요^^

**** 1월의 기도제목 ****

***생명을 소유한 복음자의 삶의 향기가 있게 하소서**

***리본레구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되고, 지역에 영향력을 주도록**

***매체 유치원과 사랑마을 아이들이 차 세대 리더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 담장 축대 쌓는 일과 땅 고르는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Happy Christmas!

